

朝鮮代 자물쇠(鎖子)의 分類와 그 發展過程의 研究

田 大 熙

A Study on Classifications and Developed Processes of the
Locks and Keys made in the Time of Chosun Dynasty

Jeon, Dae-Hi

〈 目 次 〉

- Abstract
1. 序 說
2. 朝鮮代 자물쇠의 分類

3. 朝鮮代 자물쇠의 發展過程
4. 要 約
參考文獻

Abstract

This paper classified the locks and keys made in the time of Chosun Dynasty and studied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ducible from them.

1. The locks and keys made in the early time of Chosun Dynasty are nearly the same as those made in the time of Silla Dynasty and they have improved little until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2. Since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the typical two-shoulder-type lock of Chosun Dynasty developed from the one-shoulder-type and two-dragon-shape lock of the Chosun Dynasty.
3. The typical lock and key developed into various kinds and shapes on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mechanisms.
 - a. Locks which are opened only by the keys and have solidity.
 - b. Locks which can not be opened by a stranger with the keys.
 - c. Locks which have beautiful shapes but are easy to handle.

1. 序 說

자물쇠는 열쇠로 열거나 단 한사람 혹은 몇 사람만이 아는 방법으로 操作하지 않고서는 可動되지 않은 그 잠글대에 의해서 門, 실함 혹은 箱子 등을 잠그는 裝置이다.

자물쇠는 古代 希臘의 神殿鑰(열쇠)¹⁾이라고 그 銘文에서 判定된 길이 40cm정도의 靑銅製열쇠(圖 1上)가 發見됨으로써 紀元前 5世紀頃에 이미 使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열쇠의 크기로 보아서 當時의 自물쇠는 木製大形의 것이었으리라고 상상되나 로마時代의 열쇠²⁾에는 상당히 작은 靑銅製가 있다는 點(圖 1左下)에서 이 때에는 이미 全金屬製의 자물쇠가 使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當時의 金屬製 자물쇠는 다 鐵製라 모두 腐蝕되어 버렸는지 이를 確認할 수 있는 遺品이 發見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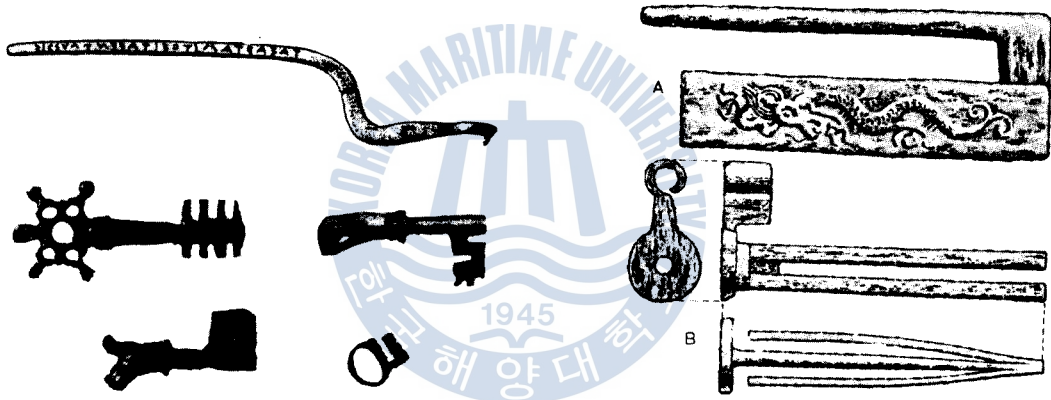


圖 1. 希臘時代 神殿鑰(上)와 로마時代 靑銅鑰(下 4個)

圖 2. 元·明代 자물쇠(A:잠글통, B:잠글쇠)

中國의 禮記 月令註³⁾에는 「鍵은 牡(모:숫것)고 閉는 牝(빈:암것)이며 管鑰(관약)은 鍵의 博器」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漢代에서도 이미 元·明代 자물쇠와 類似한 것이 使用되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漢代 자물쇠가 아직 發見되지 않고 있다.

唐代나 元明代의 자물쇠⁴⁾는 共通的으로 禮記의 內容과 같이 잠글통(閉), 잠글쇠(鍵) 및 열쇠(管鑰)의 세 부분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 세 部分의 總稱이 자물쇠(鑰子)이다. 이 자물쇠는 잠글쇠가 잠글통안에 들어가서 그 창(날개)을 벌림으로써 닫히고, 열쇠로서 잠글쇠의 창을 壓着시켜서 잠글통 밖으로 잠글쇠를 밀어냄으로써 열리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時代부터 어떠한 자물쇠가 使用되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統一新羅初期에 築造된 雁鳴池에서 開閉機構와 外形이 同一한 大小 네개의 有銘 鐵製자물쇠⁵⁾가 出土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자물쇠가 이미 統一新羅初期 以前부터 使用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雁鳴池 出土 자물쇠(圖 3)는 元代 乃至 明代의 자물쇠나 朝鮮代 雙龍자물쇠(寫 1-2A)와 同種同

型이고 日本의 江戸代것과 完全 同型이라는 네파알 國 자물쇠⁶⁾(圖4 B)와도 同種同型이다. 또 日本에서 자물쇠 使用이 一般化한 것은 江戸中期부터⁷⁾라고 하나 法隆寺 建立資材帳中에 鎖鑰이 登載⁸⁾되어 있으므로 日本에는 이 寺院의 建立以前부터 이미 자물쇠가 使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東洋 자물쇠는 로마時代나 中世紀의 西洋자물쇠와 그 開閉機構面에서 判異하다. 이들 事實은 西洋 자물쇠의 影響을 받지 않고 開發된 中國자물쇠는 실크루 우드를 따라 그 周邊에 점차로 傳播되었고 그 終着點인 日本에는 우리나라를 거쳐 7世紀頃⁹⁾에 傳播되었을 것이라고 믿게 한다. 또 이들의 東洋 자물쇠는 交易의 規模와 範圍가 擴大되기 시작한 18世紀 中葉까지 그 開發初期의 固有한 開閉機構와 形態에 거의 變化를 주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例에서도 이 事實을 알 수 있다. 新羅統一기에 만들어진 石塔에서 사리를 얹은 層의 面石에 陽刻된 자물통¹⁰⁾은 朝鮮代의 용자물쇠와 같거나 쇠불자물쇠와 꼭 같고 扶餘 扶蘇山城의 城門터에서 發見된 것도 朝鮮代의 쇠불자물쇠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¹¹⁾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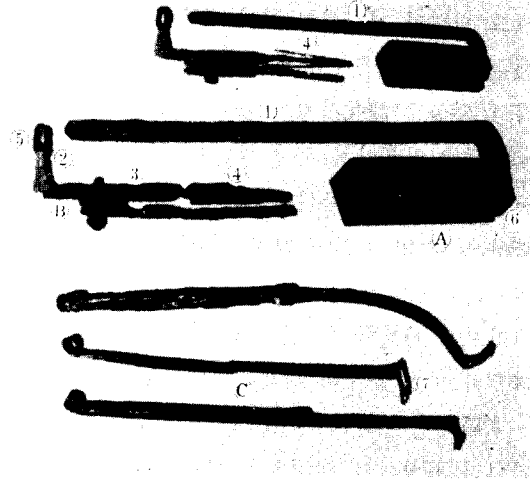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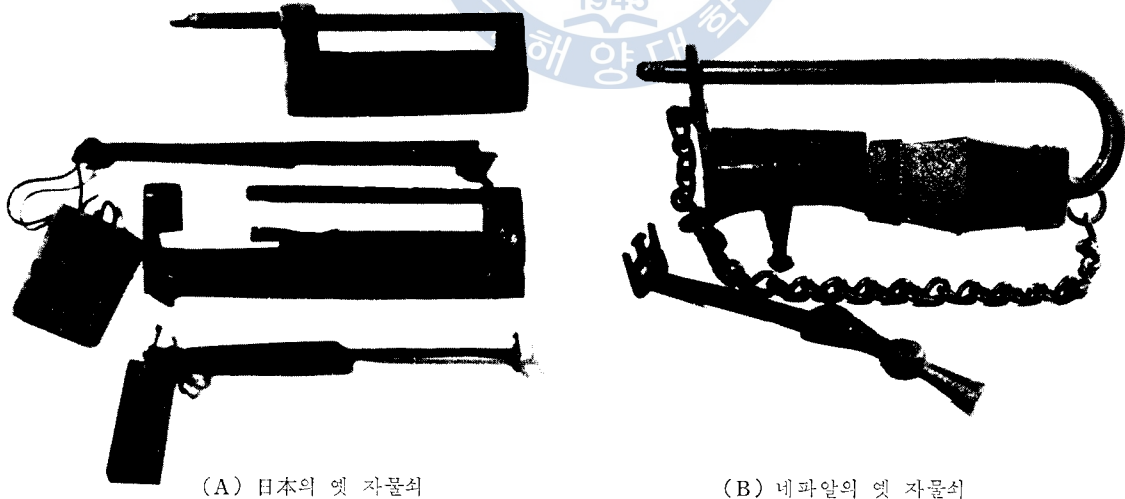


圖 3. 雁鴨池 出土 新羅代 자물쇠
 <記號> A. 잠글통 B. 잠글쇠 C. 열쇠
 ① 잠글대 ② 어깨 ③ 굿대 ④ 창(날개)
 ⑤ 잠글대구멍 ⑥ 열쇠구멍 ⑦ 열쇠끝



(A) 日本의 옛 자물쇠 (B) 네파알의 옛 자물쇠

圖 4. 잠글대-잠글통 一體型 자물쇠

雁鴨池 出土 新羅代 자물쇠나 朝鮮代 雙龍자물쇠는 모두 한 어깨型이나 朝鮮代의 典型자물쇠는 이 보다 堅實한 構造인 두 어깨型이다. 朝鮮代 자물쇠가 이와 같이 한 어깨型에서 두 어깨型으로 바뀐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交易의 規模와 範圍가 擴大됨에 따라 열어서 안된다는 象徴의 자물쇠에서 잠긴 자물쇠는 絶對로 열 수 없는 強固한 자물쇠가 必要하게 된 18世紀 中葉부터라고 생각된다. 이

後부터 朝鮮代 자물쇠는 계속해서 옛 자물쇠와 같이 閉·鍵·鑰의 三要部를 堅持하면서도 잘 열리지 않고 단단한 자물쇠와 보기 좋은 자물쇠를 希求하는 새 흐름에 따라 機構面과 形狀面에서 꾸준히 發達하여 多種多様な 朝鮮代의 三體式 자물쇠를 탄생시켰고 이것에 이어서 보다 使用하기가 便하도록 閉鍵를 一體化시킨 二體式 자물쇠도 탄생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代 자물쇠의 하나 하나는 匠人들의 精誠어린 손으로 일일이 두드리고 깎고 붙이고 갈고 닦아서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므로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다 精巧하고 똑 같은 것이 없다. 따라서 朝鮮代 자물쇠는 二體式도 있으나 閉·鍵·鑰의 三體式으로 된 자물쇠로서는 더 發展의 餘地가 없는 極限狀態까지 發展된 자물쇠가 아닐까 하고 생각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多種多様な 朝鮮代 자물쇠를 構成面과 機構面과 形狀面에서 細別하여 그 特徵을 考察하고 그 結果에 의해서 이들 자물쇠의 發展過程을 推理하여 보고저 하였다.

本稿에서 朝鮮代 자물쇠는 當代의 型式으로 製作되었거나 當代에 使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나라 자물쇠와 外國에서 流入하여 當代에 同化한 것으로 생각되는 外國型 자물쇠까지 包含한다. 또 本稿의 朝鮮代 자물쇠의 各部 名稱은 圖3과 같이 筆者의 私見에 따라서 命名하였다.

2. 朝鮮代 자물쇠의 分類

이 자물쇠는 構成과 機構와 形狀 등의 여러가지 면에서 分類할 수 있으며, 이들의 分類를 組合하면 筆者가 實物을 確認한 것만으로도 80餘種이나 되므로 朝鮮代 자물쇠는 그 種類가 아마 100餘種 以上에 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構成面에서

(1) 要部數에 따라서

- ① 三體式(2A)* ② 二體式(6B)*

大部分의 朝鮮代 자물쇠는 閉·鍵·鑰의 三部分이 具備된 三體式이고, 埋設固定型 자물쇠는 閉鍵을 一體化 시킨 二體式이다.

(2) 열쇠수(鑰數)에 따라서

大部分의 자물쇠는 한 열쇠型이나 서로 다른 두개 以上の 열쇠에 의해서 열리는 자물쇠도 있다.

- ① 한 열쇠型 ② 두 열쇠型(12) ③ 세 열쇠型

(3) 어깨수에 따라서

- ① 한 어깨型(2A) ② 두 어깨型(3A) ③ 內 어깨型(3B)

朝鮮代 자물쇠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普通三體式은 ②型이고, 雙龍 자물쇠는 ①型이며, 裏面附着型이나 裏面固定型의 三體式 및 埋設固定型 二體式은 ③型이다.

(4) 잠금대 고리수에 따라서

- ① 單 고리型(9R) ② 두 고리型(9M) ③ 세 고리型(9L)

* 寫 1~2 參照.

두 어깨間이 아주 좁은 것은 ①型이고, 그 사이가 아주 느른 것은 ③型이며, 이들은 모두 上着吊下型이다. 두 고리型은 장롱用의 圓形이나 正角形의 裏面附着型 자물쇠이다.

(口) 固着法에 따라서

- ① 上着吊下型(3A) ② 裏面附着型(3B) ③ 裏面固定型(5B) ④ 埋設固定型(6B)

(2) 材質과 製法에서

(ㄱ) 材質에 따라서

- ① 鋼製 ② 靑銅製 ③ 白銅製 ④ 黃銅製 ⑤ 鑄鐵製

大中形은 鋼製, 中小形은 銅合金製가 많다. 銅合金中에서 옛것은 靑銅製, 그 다음은 白銅製, 末期의 것은 黃銅製가 많고 鑄鐵製는 大部分이 末期製品이다.

(ㄴ) 製法에 따라서

- ① 板材熔接式(3A) ② 鑄造式(7) ③ 組立式(7L)

大部分의 朝鮮代 자물쇠는 鋼製나 銅合金製를 莫論하고 板材熔接式이고, 物象型과 末期의 자물쇠에는 鑄造式이 많으며, 組立製에는 末期製品으로서 鑄造組立製와 成形組立製가 있다.

(3) 開放機構에서

三體式에는 押出式, 拔出式, 滑出式 및 轉出式이 있고 二體式에는 貫入轉出式이 있다. 또 多鑰多操作式 자물쇠와 같이 이들의 複合式도 있다.

(ㄱ) 押出式 자물쇠(3A, 3B)

이것은 열쇠로서 잠글쇠의 창을 누르면서 그 잠글쇠를 잠글통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 ① 正統型: 筒形, 角形— 上着吊下型
 ② 物象型: 魚形, 鷄形, 蝙蝠形, 竹節形— 上着吊下型
 ③ 幾何學型: 眞圓形, 正四角形, 正八角形— 裏面附着型

(ㄴ) 拔出式 자물쇠(4A, 4B)

이것은 열쇠로서 잠글쇠의 창을 누르면서 그 잠글쇠를 잠글통 밖으로 잡아빼내는 식이다.

- ① 正統型: 筒形— 上着吊下型
 ② 物象型: 魚形— 裏面附着型

(ㄷ) 滑出式 자물쇠(5A, 5B)

이것은 그 긴 열쇠구멍을 따라 열쇠를 滑動시킴으로써 잠글쇠의 창을 누르면서 그 잠글쇠를 잠글통 밖으로 밀어내는 식이며, 上着吊下型和 裏面固定型이 있다.

上着吊下型에는

- ① 滑帶型: 前面, 下面, 內面帶式— 突出, 無突出帶式— T形孔式
 ② 無滑帶型: 後面, 下面式— I, T形孔式
 ③ 裝飾滑帶型: 前面裝飾帶, 下面無滑帶— T形孔式

裏面固定型에는

6 1982年 4月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17輯

① 滑帶型: 角形, 前面滑帶型— 兩L形孔式

② 無滑帶型: 筒形— 前面 I形孔式

(ㄱ) 轉出式 자물쇠 (6A)

이것은 열쇠를 그 구멍에서 回轉시킴으로써 잠금쇠의 창을 눌러서 그 잠금쇠를 잠금통 밖으로 밀어내는 式이며, 모두 上着吊下型이다.

① 無배곶型: 半回轉, 全回轉式— 點心孔

② 平배곶型: 全回轉式, 圓板, 花板배곶型— 一字心孔

③ 큰배곶型: 全回轉式, 高低배곶型— 點, 一, T字心孔

(ㄴ) 貫入轉出式 자물쇠 (6B)

① 埋設固定型: 四角形, 圓形— 組立式

이것은 자물쇠가 器物表面에 埋設되어 있으며, 열쇠의 回轉에 의해서 잠금대 고리에 貫入된 잠금쇠끝을 轉出시켜서 여는 것이다.

(4) 開放操作數에 따라서

朝鮮代 자물쇠의 大部分은 한 열쇠의 單操作으로 열리는 式으로 되어 있으나 한 열쇠에 의한 多操作式과 여러개의 열쇠에 의한 多操作式도 있다.

多操作 자물쇠는 모두 열쇠가 있어도 主人 以外の 사람이 잘 열지 못하도록 特別히 만든 것으로서 操作順이 틀어도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가) 한 열쇠型

(ㄱ) 單操作式 자물쇠

이것에는 單—숫대에 한 쌍의 창이 달린 簡單한 잠금쇠를 가진 것도 있으나 숫대수와 창수를 增加하고 그들의 形을 變化시켜서 잠금쇠를 複雜하게 만든 것도 있다. 그러나 열쇠를 이에 따라서 複雜하게 만들었으므로 後者의 자물쇠도 역시 單—操作으로서 열리는 것이 있다.

(ㄴ) 錯覺型 單操作式 자물쇠

이 자물쇠는 그 開閉와 無關한 類似開放裝置를 가진 것으로서 主人 以外の 사람이 열려고 할 때 混沌錯覺해서 잘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① 裝飾滑帶付 滑出式 (5A-L)

② 無배곶鑰孔付 押出式

③ 큰배곶鑰孔付 押出式

④ 押出鑰孔付 큰배곶型

(ㄷ) 二操作式 자물쇠

① 잠금쇠의 鎖定단추를 扨後에 열쇠로서 普通 單操作式 자물쇠와 같이 여는 것 (10R)

(ㄹ) 三操作式 자물쇠

① 열쇠끝을 위로 해서 열쇠 구멍에 押入해서 半을 열고 열쇠를 완전히 열쇠구멍에서 빼낸 後

에 열쇠끝을 아래로 해서 열쇠구멍에 押入해서 나머지 半을 열어서 完全히 여는 것.

- ② ①의 위와 아래 代身에 左와 右로 押入해서 여는 것.
- ③ 열쇠구멍에 열쇠끝을 넣고 半回轉시킨 後에 押入해서 完全히 여는 것.
- ④ 열쇠구멍에 열쇠끝을 깊숙히 밀어넣은 後에 半回轉시켜서 後退시킴으로서 잠금쇠를 拔出해서 여는 것(4A, 4B).

(口) 四操作式 자물쇠

- ① 열쇠구멍에 열쇠끝을 눕혀서 넣고 세운 다음에 半回轉시키고 안으로 밀어넣어서 여는 것.

(ㄴ) 五操作式 자물쇠

- ① 잠금통 왼쪽에 있는 鎖定단추를 열쇠끝으로 푼 다음에 잠금통을 오른쪽으로 약간 잡아 당기면 오른쪽의 열쇠구멍 가리개가 열린다. 그 열쇠구멍에 열쇠끝을 아래쪽으로 해서 押入해서 半을 연 후에 열쇠를 완전히 빼낸 다음에 다시 열쇠끝을 윗쪽으로 해서 열쇠구멍에 押入해서 完全히 여는 것(10L).

(ㄷ) 六操作式 자물쇠

- ① 잠금통 왼쪽에 있는 鎖定단추를 아래쪽으로 밀면서 잠금통을 오른쪽으로 약간 잡아 당기면 오른쪽의 열쇠구멍 가리개가 열리고 잠금통 밑에 있는 다른 열쇠구멍 가리개를 왼쪽으로 밀면 열쇠구멍이 완전히 노출된다. 이 열쇠구멍에 열쇠끝을 눕혀서 넣고 옆으로 세운 다음에 안으로 열쇠를 밀어 넣으면 열린다(11L).

(ㄹ) 七操作式 자물쇠

- ① 열쇠끝을 열쇠구멍에 넣고 半回轉시켜서 약간 더 밀어넣고 다시 半回轉시켜서 더 밀어넣어서 잠금쇠를 半 열고 다시 열쇠를 약간 後退시킨 다음에 半回轉하여 押入하면 나머지 半이 다시 열리므로 잠금쇠는 완전히 열린다.

(나) 여러 열쇠型

여러개의 열쇠에 의해서 열리는 자물쇠에는 多操作式의 많은 種類가 있을 수 있으나 只今까지 筆者가 發見한 것은 다음의 二種밖에 없었다.

(ㄱ) 二鑰二操作式 자물쇠

- ① 第1 열쇠를 그 열쇠구멍에 넣고 回轉시키면 잠금쇠가 半 열리면서 열쇠구멍 가리개를 움직이므로 第2 열쇠구멍이 露出된다. 이 구멍에 第2 열쇠끝을 넣고 押入하면 잠금쇠가 완전히 열린다(12).

(ㄴ) 三鑰五操作式 자물쇠

- ① 第1 열쇠를 그 구멍에 넣고 押入해서 잠금쇠의 第1段을 열고 第2 열쇠를 第2 열쇠구멍에 押入해서 第2段을 연 後에 第3 열쇠끝을 오른쪽으로 해서 第3 열쇠구멍에 押入하여 第3段을 열고 그 열쇠를 완전히 빼낸 다음에 그 열쇠끝을 反對쪽으로 해서 다시 第3 열쇠구멍에 押入해서 잠금쇠를 完全히 연다.

(5) 잠금쇠의 構成面에서

(7) 軸대 수에 따라서

- ① 單軸式 ② 二軸式 ③ 三軸式 ④ 四軸式 ⑤ 五軸式

(L) 창(날개)수에 따라서

- ① 單翼式 ② 二翼式 ③ 四翼式 ④ 五翼式 ⑤ 六翼式 ⑥ 單割翼式 ⑦ 雙割翼式

(C) 창의 壓着法에 따라서

- ① 內壓式 ② 外壓式 ③ 重外壓式 ④ 內外壓式

(6) 열쇠의 形狀面에서

(7) 열쇠구멍 모양에 따라서 (13)

I-T O H X 등과 그 複合形

(L) 열쇠끝 모양에 따라서 (14)

口 D H I C T X 등과 그 複合形

(7) 其他 分類에서

(7) 잠글통의 外飾面에 따라

- ① 銀象嵌紋：壽福亞字紋，唐草紋，太極紋，十長生紋 등
② 陰刻紋：壽福，壽福多男，壽福康寧，守而勿久失，日光百福來，百福日光生 등
③ 陽刻紋：壽，福，唐草紋 등
④ 透刻紋：花形

(L) 자물쇠의 크기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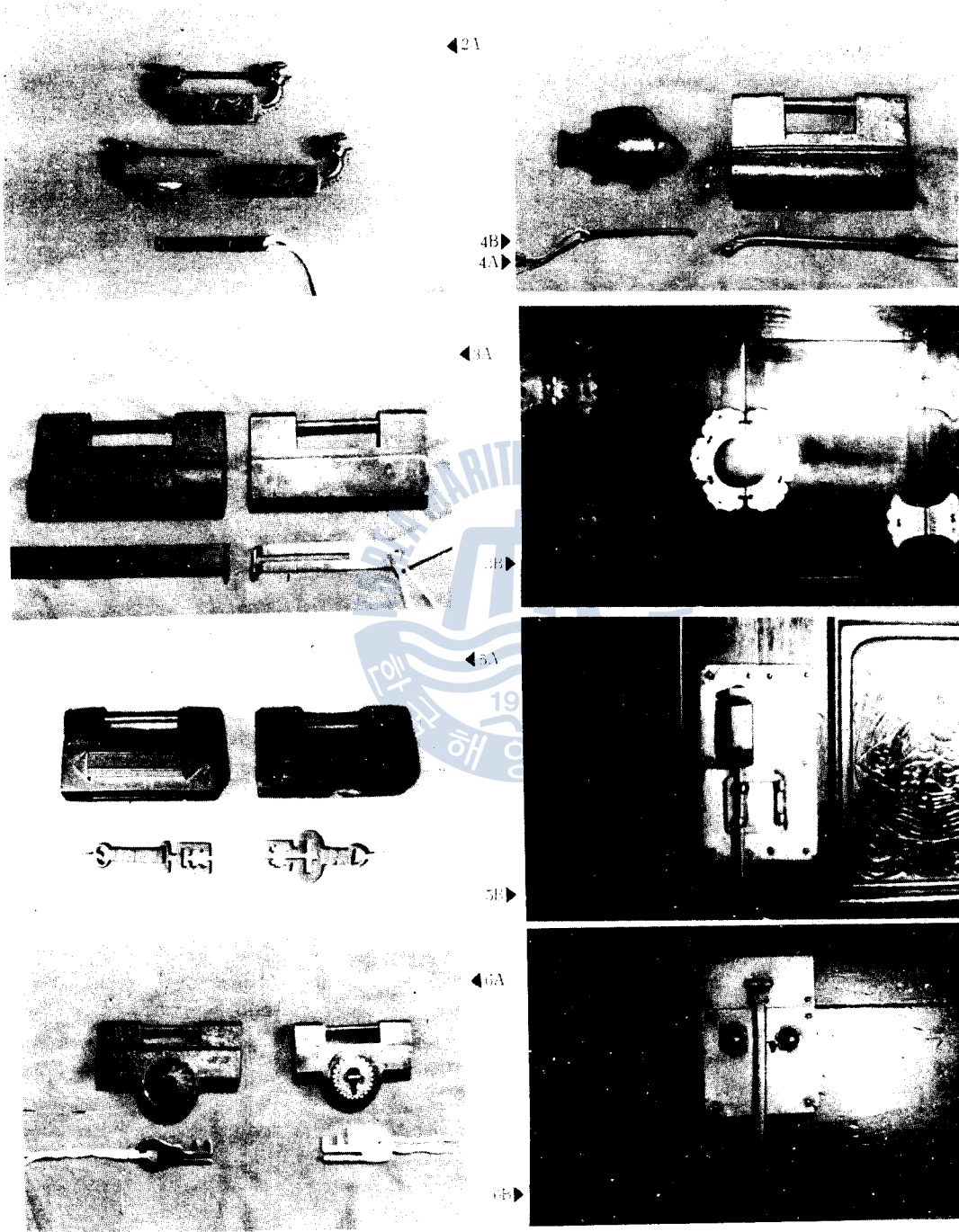
- ① 큰 것：길이 19.8cm, 무게 2,550g의 三體式 典型 銅製자물쇠
② 작은 것：길이 3.7cm, 무게 25g의 三體式 典型 白銅자물쇠

(C) 잠글대가 붙은 部分에 따라

- ① 잠글대-잠글통 一體型：新羅代 자물쇠
② 잠글대-잠글쇠 一體型：朝鮮代 雙龍자물쇠, 朝鮮代 典型자물쇠

3. 朝鮮代 자물쇠의 發展過程

우리나라에서 자물쇠를 使用하기 시작한 것은 統一新羅初期 以前에 中國에서 傳播되어 온 以後부터라고 하나 前述한 바와 같이 朝鮮中期까지의 千數百年間의 오랜 세월을 두고 자물쇠는 그 機構나 形狀의 면에서 거의 變化가 없었다. 이것은 자물쇠란 사람에게 가장 所重한 것을 깊이 오래도록 감고자 하는 表示이고 낯선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不可侵을 表示하는 象徴이 었으므로 그 形狀이나 機構까지도 함께 깊이 오래도록 감아야 하는 것²⁾으로 믿어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交易이 活潑하고 그 規模가 擴大된 18世紀 中葉부터 자물쇠란 열어서 안된다는 單純한 象徴的 表示에서 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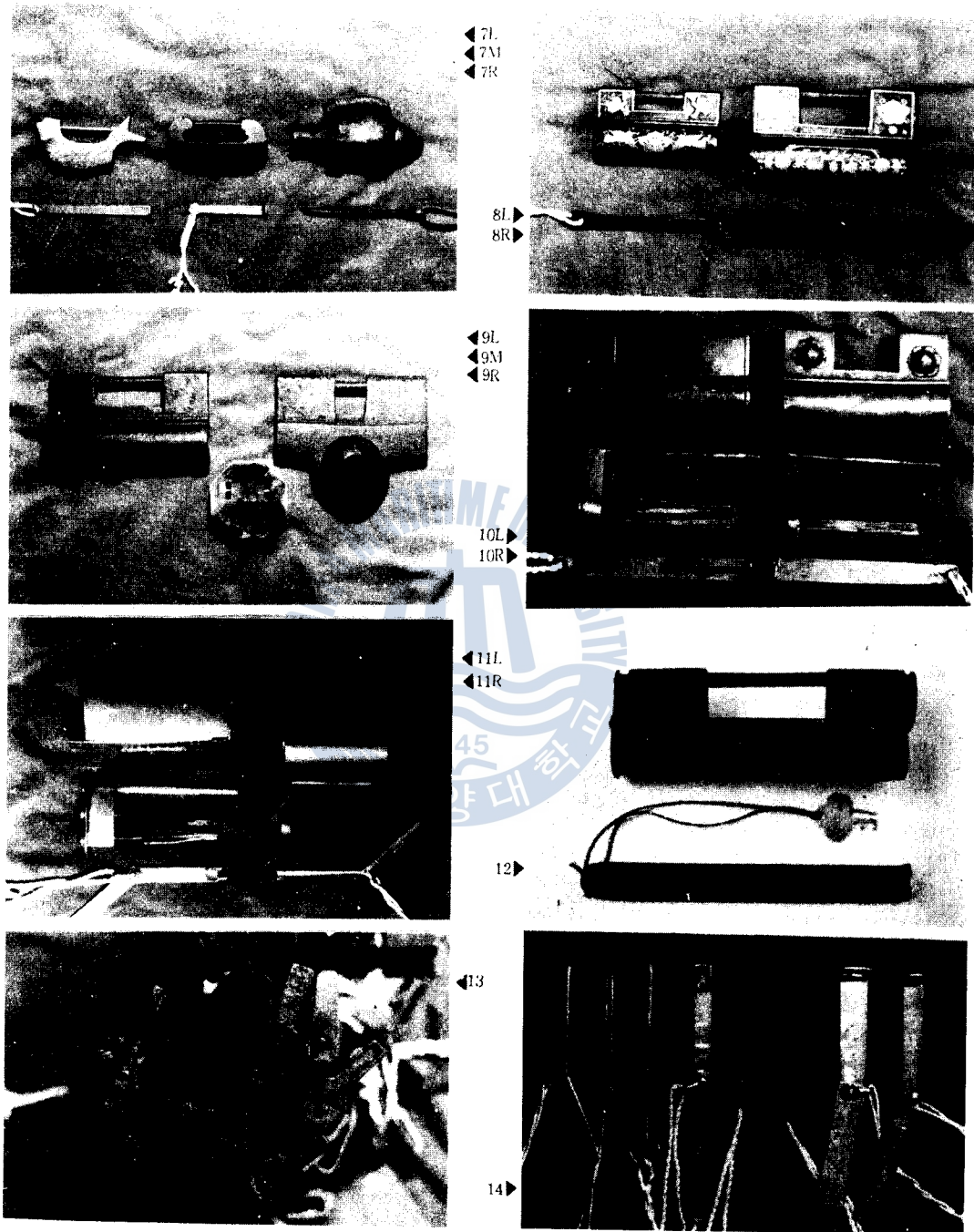


寫 1. 朝鮮代 자물쇠의 分類(1)

2A: 雙龍 자물쇠(押出式)
4A. 4B: 拔出式 자물쇠

3A: 典型 자물쇠(押出式)
5A. 5B: 滑出式 자물쇠

3B: 裏面附着式 자물쇠(押出式)
6A. 6B: 轉出式 자물쇠



寫 2. 朝鮮代 자물쇠의 分類(2)

- | | | |
|-----------------------|-------------------|------------------|
| 7: 物形 鑄造자물쇠 | 8: 銀象嵌 자물쇠 | 9: 한~세 고려型 자물쇠 |
| 10, 11: 한 열쇠 多操作式 자물쇠 | 12: 두 열쇠 多操作式 자물쇠 | 13, 14: 열쇠구멍과 열쇠 |
| L: 왼쪽 자물쇠 | M: 중앙의 자물쇠 | R: 오른쪽 자물쇠 |

人 以外는 絶對로 열 수 없다는 強力한 意志表示로 바뀜으로서 庶民層에까지 자물쇠가 普及된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代 자물쇠는 이 세 흐름에 따라 한 어깨형의 雙龍 자물쇠에서 보다 強力한 機構인 두 어깨형의 典型 자물쇠로 發達되었고 보다 아름다운 자물쇠와 보다 使用하기에 편한 자물쇠로 꾸준히 發展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多種多樣한 朝鮮代 자물쇠를 多角度에서 分類하고 그 特徵을 살펴보니 이 자물쇠는 製作年代面보다는 그 型式發生順에 의해서 一般機器의 發展通念에 따라 새로운 자물쇠를 탄생시켰고 改良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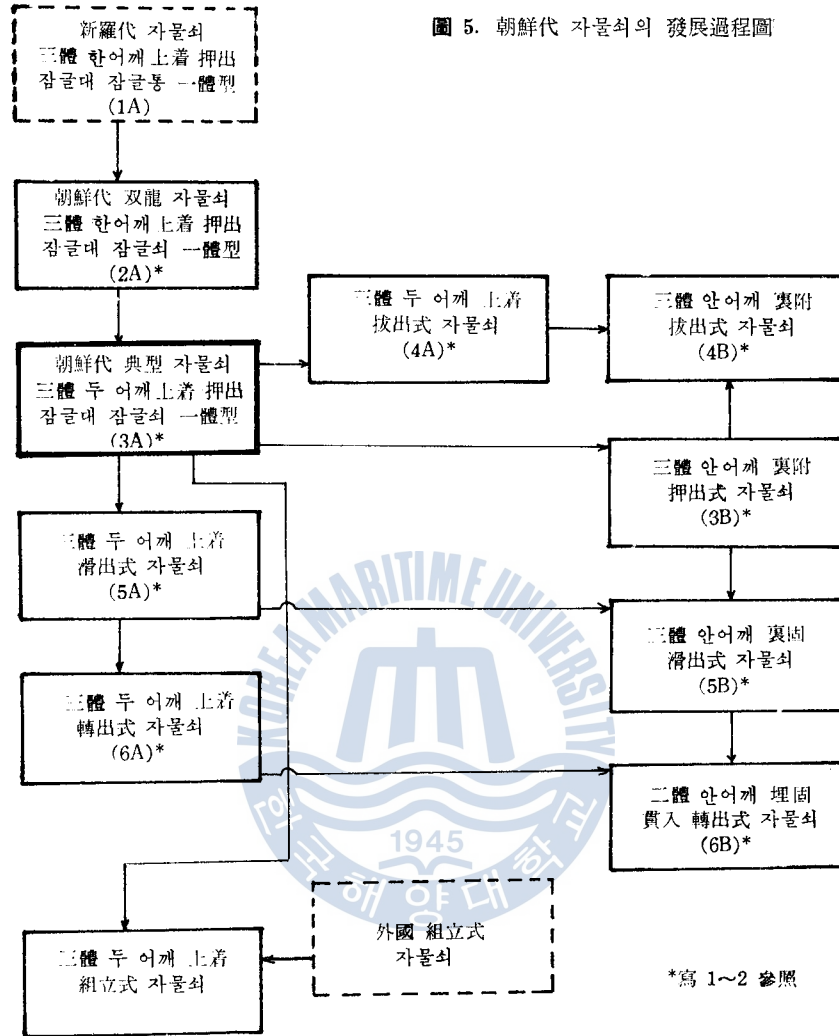
雁鴨池 出土 新羅代 자물쇠와 朝鮮代 雙龍 자물쇠를 잘 살펴보면 兩者는 모두 잠글통, 잠글쇠 및 열쇠의 三要部를 갖춘 押出式 上着吊下型이고 한 어깨형의 자물쇠이나 前者는 잠글대가 잠글통에 붙어 있고 後者는 잠글대가 잠글쇠에 붙어 있다. 또 圖2의 元明代의 자물쇠나 圖4의 日本과 니파알의 옛 자물쇠도 雁鴨池 出土 자물쇠와 完全한 同種同型이다. 잠글대가 잠글통에 붙어있느냐 혹은 잠글쇠에 붙어 있느냐는 큰 意義를 가진다. 왜냐하면 한 어깨형 三體式 자물쇠에서 잠글대가 잠글쇠에 붙은 것은 잠글통에 붙은 것에 비해서 자물쇠 強度가 많이 떨어지나 三體式 자물쇠의 強度를 많이 向上시킨 두 어깨형 자물쇠는 반드시 이 變化過程을 밟고 發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上着吊下型 押出式의 한 어깨형인 雙龍 자물쇠는 上着吊下型 押出式의 두 어깨형인 朝鮮代 典型 자물쇠를 탄생시켰고, 이 典型 자물쇠는 다음과 같이 構造의 複雜化와 開閉操作의 多段化와 形狀의 美化의 三方向으로 發展을 계속해서 多種多樣한 朝鮮代 자물쇠를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代 典型 자물쇠는 첫째로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는 자물쇠를 만들려고 한편으로는 잠글쇠의 鍵대수를 하나에서 다섯개까지로 늘였고 그 창수를 하나에서 여섯개로 늘렸으며 또 單翼창에서 割翼창까지 活用하는 동시에 열쇠 끝모양을 口, D, H, I, C, X, …… 등과 그 複合形을 採用함으로써 열쇠끝이 창을 누르는 方法을 多樣化해서 難解한 자물쇠로 만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 典型 자물쇠는 圖5와 같이 三體·두어깨·上着吊下·拔出式 자물쇠를 만드는 同時에 三體·두어깨·上着吊下·滑出式 자물쇠를 거쳐서 三體·두어깨·上着吊下·轉出式 자물쇠를 만들어서 자물쇠를 難解化 하였다. 또 이 典型 자물쇠는 보기 좋고 使用하기 편하도록 三體·內어깨·裏面附着·押出式 자물쇠를 탄생시켰고, 이것은 三體·두어깨·上着吊下·拔出式 자물쇠와의 사이에서 三體·內어깨·裏面附着·拔出式 자물쇠를, 三體·두어깨·上着吊下·滑出式 자물쇠와의 사이에서 三體·內어깨·裏面固定·滑出式 자물쇠를 각각 낳게 하였으며, 三體·內어깨·裏面固定·滑出式 자물쇠와 三體·두어깨·上着吊下·轉出式 자물쇠와의 사이에서는 最初로 閉와 鍵을 一體化시킨 二體·內어깨·埋設固定·貫入轉出式 자물쇠가 생겨났다.

朝鮮代 典型 자물쇠는 둘째로 열쇠가 있어도 主人 以外에는 열리지 않은 자물쇠를 만들려고 잠글쇠의 鍵대와 창키의 수와 모양에 대한 열쇠의 相對的 모양을 變化시키고 열쇠통로에 障害物, 잠글통에 鎖定裝置나 열쇠구멍가리개 등을 設置해서 자물쇠의 開放操作數를 1에서 7까지로 多段化시켰으므로 열쇠가 있어도 操作順이 맞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또 두개 내지 세개의 열쇠의 一定順序에 의한 獨特한 操作에 의해서만 열리는 자물쇠도 있고, 開閉와는 無關한 類似開放裝置를 附設해서 主人 以外의 사람이 열려고 할 때 錯覺混濁하도록 된 것도 있다.

朝鮮代 자물쇠의 材料面과 製法面에서는 初期의 靑銅鑄物에서 白銅鑄物로, 다시 靑·白銅板의 成

圖 5. 朝鮮代 자물쇠의 發展過程圖



形熔接物에서 鋼板成形熔接物로 發展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들 자물쇠의 熔接法은 初期에 熔接할 部分을 잘 닦아놓고 高溫으로 加熱한 後에 靑銅硼砂物을 그 위에 부어 붙이는 이른바 參膜질을 하였을 것이고 그 次期에는 熔接法의 發達에 따라 靑·白銅납을 使用한 납膜질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들 자물쇠의 美化는 그 外形을 물고기, 닭, 박쥐 등의 物象形과 圓形, 正四角形, 正八角形 등의 幾何學的形으로 發展된 한편 그 表面이 보다 華麗하도록 陰刻, 陽刻, 透刻, 銀象嵌 등으로 再美化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과 같이 朝鮮代 자물쇠는 그 機構上이나 美化上으로 보아서 더 發展의 餘地가 없는 極限에까지 多種多樣하게 發展되었으나 朝鮮末期에 와서 大量生産에 의해서 製作費를 半減할 수 있고 堅固한 組立式의 西洋자물쇠가 이 땅에 上陸하였다. 이에 대해서 製作費를 輕減하려고 鑄造組立式과 成形組立式의 三體·押出式 자물쇠로 對抗하였으나 機構面과 技術面에까지 西洋자물쇠에 뒤졌기 때문에 朝鮮代 자물쇠는 우리 國運과 같이 衰退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要 約

우리나라의 자물쇠는 거의 朝鮮中期까지 新羅代의 옛 자물쇠의 機構와 構造의 面에서까지 原形을 그대로 固守하다가 交易이 繁昌함에 따라서 자물쇠의 使用이 一般化되었고 象徴的 자물쇠에서 實質的이고 強力하고 難解한 자물쇠가 必要하게 됨으로서 朝鮮代 雙龍자물쇠를 거쳐서 三體式 두 어깨型 上着吊下型 押出式의 朝鮮代 典型자물쇠를 탄생시켰으며, 이것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發展을 계속한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代 典型자물쇠는 첫째로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는 자물쇠를 만들려고 잠금쇠의 鍵대수와 창수를 늘이고 창외 모양을 變化시켜서 難解한 자물쇠를 만드는 한편 三體·두어깨·上着吊下·拔出式 자물쇠를 낳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三體·두어깨·上着吊下·滑出式 자물쇠를 거쳐서 三體·두어깨·上着吊下·轉出式 자물쇠로 發展되게 하였다. 이에 더해서 朝鮮代 典型자물쇠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기 좋고 使用하기 便하도록 三體·內어깨·裏面附着·押出式 자물쇠를 탄생시켰고, 이것과 三體·두어깨·上着吊下·滑出式 자물쇠와의 사이에서 三體·內어깨·裏面固定·滑出式 자물쇠를 낳게 하였고 三體·두어깨·上着吊下·拔出式 자물쇠와의 사이에서는 三體·內어깨·裏面附着·拔出式 자물쇠를 탄생시켰다. 또 三體·內어깨·裏面固定·滑出式 자물쇠와 三體·두어깨·上着吊下·轉出式 자물쇠와의 사이에서는 二體·內어깨·埋設固定·貫入轉出式 자물쇠를 생기게 하였다.

둘째로 朝鮮代 典型자물쇠는 열쇠가 있어도 主人이 아니면 열 수 없는 자물쇠를 만들려고 열쇠통로에 障害物, 잠금통에 鎖定裝置나 열쇠구멍가리개 등을 設置하고 혹은 서로 다른 여러개의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자물쇠를 만드는 등으로 자물쇠의 開放操作數를 늘리고 그 操作順이 맞지 않으면 열리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로 朝鮮代 자물쇠는 보기 좋게 만들려고 잠금통의 外形을 고기, 닭, 박쥐 등의 物象形이나 圓形, 正四角形, 正八角形 등의 幾何學的形으로 하는 同時에 잠금통 表面을 陰刻, 陽刻, 透刻 혹은 銀象嵌 등으로 美化시킨 것을 많이 만들었다.

以上과 같이 朝鮮代 자물쇠는 多種多樣하게 發展하여 이 開閉機構로서는 더 以上 改善될 수 없는 極限에 이른 感이 든다. 그러나 朝鮮末期에 와서 값싸고 튼튼한 外國産의 組立式 자물쇠가 이 땅에 上陸함으로써 이에 三體·두어깨·上着吊下·押出·組立式자물쇠로 對抗하였으나 力不足으로 朝鮮代 자물쇠는 斜陽길을 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1) 內山惠太：鍵・錠の金屬學，金屬，Vol. 46, No. 2, p. 22, アグネ社(1972).
- 2) Lock,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14, p. 186(1970).
- 3) 中國古典，四書五經，禮記，月令註.
- 4) 春山行夫：鍵，世界大百科事典，Vol. 4, p. 241, 平凡社(1969).
- 5) 國立中央博物館：雁鴨池 出土 遺物圖錄(75~76 發掘調査)，p. 128.
- 6) 稻田淳夫：錠と鍵，The 骨董，Vol. 4, p. 138(1981).
- 7) 에용해：자물통, 뿌리깊은 나무, 1978年 5月號, p. 117~118.

